

한국기업의 구조, 전략, 성과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기업활동 : 구조, 전략, 성과』의 보고서를 통계개발원이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의 연구는 「기업활동조사」의 2005~2007년의 3개년 결과치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므로, 향후 매년 조사결과의 누적으로 기업패널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의 분석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조사 결과로 본 한국 기업의 구조변화에서는 한국기업의 구조, 전략, 성과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기업체수는 감소, 산하 사업체수는 증가

「기업활동조사」의 조사 대상 기업체수는 조사 첫해인 2005년 10,908개에서 2007년 10,749개로 계속 감소하였지만 산하 사업체수는 60,317개에서 69,728개로 9,422개 증가하였다. 기업 산하 사업체수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고용 면에서는 총 종사자수의 21.4%, 부가가치는 GDP의 38.8%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2007년 기준으로 기업체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으로서 5,927개(전체의 56.3%)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소매업 845개(7.8%), 출판영상통신업 768개(7.1%), 운수업 675개(6.2%), 건설업 633개(6.0%)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 기업체수 가장 많아

1기업당 사업체수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59.2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체들을 거느리고 있고, 숙박음식점업도 기업당 23.5개의 많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및 임대업이 11.2개, 도소매업이 10.1개로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 다각화와 관련, 2007년 기준으로 31.4%의

다각화와 국제화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정밀기기, 전기전자, 제1차금속에서 높은 수입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석유화학에서, 일본은 일반기계와 수송장비, 대만은 섬유가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집중도를 나타낸다.

기업이 주업종 이외의 타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겸업 기업비율은 2005년 23.2%에서 2007년 31.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성과를 보면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중기업 등이 매출액, 영업이익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관련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된 데 비해 농림어업,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31.4%가 경영 다각화

기업의 다각화와 국제화 현황 및 기업성과 분석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다각화와 국제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래된 기업일수록 다각화, 수출입비중, 그리고 해외자회사 보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신생기업일수록 외국자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각화와 국제화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비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다각화의 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수출입비중이 높고 해외자회사 보유의 경우도 많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기업들의 다각화와 자회사보유 간에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자회사 보유는 이중산업간의 비관련다각화와, 그리고 해외자회사 보유는 동종산업간의 관련다각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와 국제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비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와 국제화가 금융부문의 성과에 긍정적

기업의 외부위탁, 전략적 제휴 및 신산업진출의 결정요인과 효과에서는, 외부위탁과 전략적 제휴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운송·배송·보관 등 물류분야와 디자인·제품 기획 분야에서 외부위탁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탁과 수출비중이 함께 높아질 경우 기업 성

과의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외부위탁에서 오는 계약상 위험과 수출시장 확대의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위탁과 연구개발이 함께 활발해질 경우 이는 기업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적 제휴와 종업원당 연구개발비가 동시에 높아질 경우 이는 기업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위탁이나 전략적 제휴가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기술력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기업 성과를 개선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부위탁과 연구개발은 기업성장에 기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집중도(연구개발비/매출액)가 기업규모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석유화학 및 운수장비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집중도와 기업규모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연구개발집중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활동과 경영혁신 전략의 관계를 보기 위해 e-비즈니스 도입여부에 초점을 두어 검증해본 결과, 연구개발활동과 e-비즈니스를 통한 경영혁신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외주 활동 결정요인 분석

을 보면, 연구개발의 외주는 소수의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이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중 18%가 외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외주비율(외부 연구개발비/총 연구개발비)은 33~35% 수준이다.

연구개발의 외주비율은 33% 이상

외주 활동은 기업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에게는 내부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기술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외주 활동이 내부 연구개발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연구개발의 외주활동은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외주 활동이 낮은 이유는 외주 연구개발을 수행할만한 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기술혁신은 산학연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되는 특징을 갖는데,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은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산학연간 네트워크를 장려하는 수단으로서 외주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 내부 연구개발투자보다 보다 큰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성과 요인분석에서는 수출 비중(수출액/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수익성, 노동생산성 및 기업의 성장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기업활동조사」의 시계열이 짧아 거시적 요인에 의한 연도별 효과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자본 비중은 시장점유율에 플러스 영향

외국자본 비중은 자산수익률(영업이익/자산)과 시장점유율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외주비중은 자산수익률과 매출액수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광고비비중(광고비/매출액)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구비지출 비중(연구비 지출/매출액)은 당기의 수익성, 노동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끼치나 매출액 증가(기업성장)에는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지표들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생산성 비교를 해보면, 두 통계에서 나타난 기업 수(제조업)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으며, 기업당 매출규모도,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일본이 평균적으로 약 1.7배 정도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의 경우 제조업 전체의 한·일간 노동생산성 배율(일본 노동생산성/한국 노동생산성)이 1.10(2005년과 2006년의 평균)으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약 10%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

업별로 보면 전자산업에서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 산업에서는 2005~2006년 평균적으로 1.4배 정도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생산성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약 10%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일본의 자본생산성은 한국에 비해 68%(2005년), 78%(2006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동차, 조선 등을 포함한 운송장비 산업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비해 평균적으로 9%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생산성, 한국의 전자산업이 일본보다 우위

총요소생산성은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에 비해 제조업 전체적으로 약 2.7% (2005년과 2006년의 평균)가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이 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져 일본 기업들과의 총요소생산성 간격이 좁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들의 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일관되게 대규모 기업의 생산성수준이 중소기업의 기업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격차는 2005~2007년 기간동안 확대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양극화 지수를 보면,

2005년 123.1에서 2007년 131.1로 증가되었고,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양극화현상이 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양극화지수: 108(2005년), 일본 양극화지수: 102(2004년))

국내 1위기업의 선진기업 추격성과 현저

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 명시성이 높은 기업일 수록 선진기업에 대한 생산성 추격성고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또한 산업에 속한 1위 기업의 대부기업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위 기업이 해당산업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인적자원 및 경영노하우 이전, 세계시장 동반진출, 생산네트워크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강하게 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명시성이란 산업별 연구개발비 지출당 특허보유건수로 표시된다. 대부기업 효과(big brother effect)란 국내 선두기업의 높은 생산성 수준이 해당산업의 선진기업의 생산성을 추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효과이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의 DB와 「기업활동기본조사」를 이용, 생산성동향 분석한 일본의 기업활동기본조사를 이용한 실증연구에서는, 2000~2005년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의 최대 원천은 총요소생산성(TFP) 상승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TFP상승의 가속이 현저했던 것은 비제조업이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의 상승

제조업에서는 노동의 질상승 및 중간투입, 자본

투입의 증가 하에서 TFP가 상승한 것에 비해, 비제조업의 TFP상승 가속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투입을 모두 감소시키는 이른바 구조개혁(리스트럭처링)형의 생산성 개선이었다.

일본의 1996~2000년과 2001~2005년의 TFP 상승률을 기업내 요인, 산업내 기업생산성 분포 요인, 진입·퇴출 요인으로 분해해서 분석해 본 결과, 2000년대 TFP상승 가속은 구조개혁의 기업내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은 주로 글로벌 경쟁압력에 직면하는 수출기업,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을 행하는 기업 등에서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경쟁과 혁신활동 사이에 역U자형 관계

한일간 기업동학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면, 한국의 경우 1992~1997년간 고생산성 신규진입 기업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도하였고, 경제위기 이후인 1998~2003년간에는 존속기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1994~2001년간 지속적으로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쟁과 혁신활동 사이에는 역U자형 관계(당초에는 긍정적 효과이나 어느 시점 이후 부정적 효과를 미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진입기업이 존속기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존속기업의 혁신활동은 해당기업의 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